

## 실습학기(인턴쉽) 최종보고서

- 인턴쉽 산업체명 : 푸드엔컬처 아카데미
- 인턴쉽 과 정 명 : 푸드엔컬처 아카데미 인턴쉽 과정
- 인턴쉽 기 간 : 2019 . 06 . 25 . ~ 2019 . 08 . 09 .

2019 . 08 . 13

우 송 대 학 교

외식조리학부 글로벌한식조리전공 3 학년

강            빈            (인)

## I. 서론

인턴쉽 과정은 사회생활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어준다. 연필만 잡던 학생이 직접 실제 업무에 나가서 일을 하고 배우면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할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인턴쉽 과정을 통해서 실제 업무에서 쓰이는 조리용어, 레시피 등을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던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또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닌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한 것 같다. 일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에서 얼마만큼 배우고 얻어가는 것인지는 본인 재량인 것 같다. 이렇게 인턴쉽 과정이라는 좋은 기회를 통해 실제 업무에 대해 배우고, 본인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턴쉽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II. 본론

푸드앤컬처 아카데미는 한국전통음식문화연구원으로 우리나라 전통음식에 대해 연구를 하고 외국인들에게 이를 가르쳐주는 곳이다. 원장님, 팀장님, 직원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수업, 어린이 쿠킹클래스, 영화촬영 소품팀, 잡지촬영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배운 것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수업, 어린이 쿠킹클래스, 홈페이지 디자인 작업 등이 있다. 영화촬영에도 호기심이 많았으나 아쉽게도 내가 다니는 기간 동안에는 영화촬영이 없다 하여 직접 경험해볼 수는 없었다. 또한, 잡지촬영 역시 같은 이유로 경험할 수는 없었지만 그동안의 잡지촬영 기록들을 책으로 읽어보고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을 하며 팀장님, 직원분들과 친분도 생겨서 인턴쉽이 끝난 후에 있을 잡지촬영 때 궁금하면 와서 경험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아쉬움은 없다. 또, 푸드앤컬처 아카데미는 한식을 주로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나의 전공인 한식과도 잘 맞아서 좋았다.

학교에서 배우던 한식에 덧붙여 실제 업장에서 쓰이는 한식의 영어로 된 설명, 레시피 등을 배울 수 있었다. 어설픈 영어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걱정도 매우 컸지만 이것과는 무관하다. 매일 영어로 된 요리수업을 직접 듣고 따라하면서 점차 영어실력도 늘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배우던 내용과 실제 업장에서 쓰이는 것의 차이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배우고 느낄 수 있으며, 덧붙여서 한식에 대해 추가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식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Ⅲ. 결 론

처음엔 기물 위치도 파악하지 못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혼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질문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다. 점점 이곳에 적응하면서 나중엔 묻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하는 내 자신이 낮설 정도였다. 또한, 처음엔 한식에 대해 설명하라 했을 때 이론상으로 배운 것들을 한 단어씩 말할 수는 있었지만 문장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순 없었다. 그러나 이곳을 다니면서 원장님, 팀장님께서 점심식사, 청소시간 등 잠깐씩 시간 내어 알려주시는 것들, 내가 스스로 자료수집을 해서 팀장님께 궁금한 점을 여쭙보는 등 공부를 하다 보니 이제 한식에 대해 문장으로 잘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 스스로 움직여야 가능한 일이라는 점도 배울 수 있었다. 가만히 일만 했다면 몰랐을 사실이었다. 점심시간 등을 통해 원장님, 팀장님, 직원 분들 모두가 인생 조언을 해주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디딤돌이 되어주셨다. 인턴쉽 과정이 없었다면 영어로 된 조리용어, 한식에 대한 설명 등 아직도 몰랐을 것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뜻 깊은 기회가 되어 정말 좋았고, 미래에 가질 직업에 대해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처음엔 꽤 긴 기간이라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다가올수록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이 맺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활동이 있다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저 감사하고, 그 순간이 온다면 또 열심히 배우고 일 할 것이라 다짐하였다.